

현안과제연구  
12.2.15

# 2012 충남의 GRDP 전망

연구수행: 김양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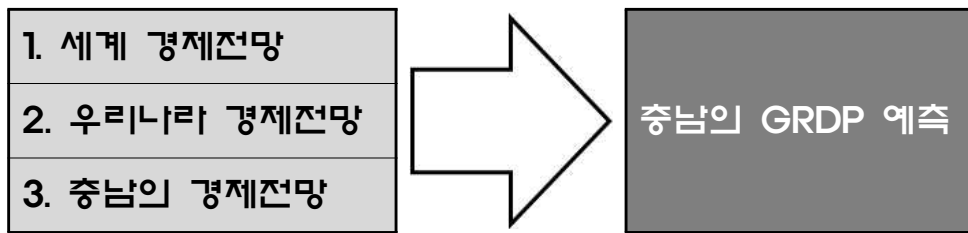
## 2012 충남의 GRDP 전망

### 〈목 차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세계 경제전망 .....           | 1  |
| 2. 우리나라 경제전망 .....         | 2  |
| 3. 충남의 경제전망 .....          | 4  |
| 4. 충남의 2012년 GRDP 예측 ..... | 7  |
| 5. 요약 및 결론 .....           | 9  |
| <참고자료> .....               | 10 |

## 〈연구요약〉

-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나라 및 충남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여 충남의 2012년 GRDP(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)를 예측하여 충남 경제통상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



-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GRDP 예측을 위해서 충남의 경제변수를 감안한 ARIMAX 모형을 활용
- 분석결과 2011년 충남의 GRDP는 전년대비 7.2% 증가한 87.9조원으로 예상
-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10년 2011년 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충남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
- 그러나 ARIMAX 모형은 갑작스런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, 재정위기 등 상황에 따라 예측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

## 1. 세계 경제전망<sup>1)</sup>



### ◆ 유럽 재정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

-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임
- 현재와 같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유로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
- 또한 유로지역 경제는 재정긴축과 신용경색에 따른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
### ◆ 미국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

- 2010년 하반기 2.4%였던 미국의 경제성장률(전기 대비 연율)이 2011년 1/4분기 0.4%, 2/4분기 1.0%로 급락

---

1) 세계 경제전망은 “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”(삼성경제연구소)의 내용을 요약하였음

- 2010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주요 경제지표들도 급격히 악화되어 향후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
- 미국경제의 저성장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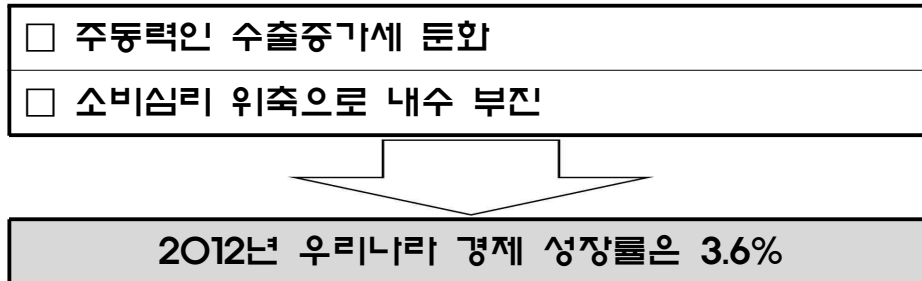
#### ◆ 국제유가는 2011년보다 하락

- 2012년 국제유가(연평균)는 2011년보다 14.3% 하락한 1배럴당 90 달러로 전망
- 2012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로 국제유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
- 선진국의 금융구제와 신흥국의 긴축기조 지속 등도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

#### ◆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.5% 예상

-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의 휴유증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
- 유럽 재정위기는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전망
- 선진국 경제는 내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 마저 제한적이어서 2012년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
- 신흥국 경제 역시 선진국 경제의 부진에 따른 대선진국 수출 증가율 둔화,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융긴축 기조 지속으로 성장률이 하락

## 2. 우리나라 경제전망<sup>2)</sup>



◆ 2012년 GDP 성장률은 3.6%로 2011년에 비해 더욱 둔화

<표 1> 주요기관의 2011년 GRDP 전망

| 기관      | 2011년 GDP성장률 |
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삼성경제연구원 | 3.6%         |
| LG경제연구소 | 3.4%         |
| 기획재정부   | 3.5%         |

-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, 2011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표면화됨에 따라 성장 탄력이 약화
- 2011년에는 예상치 못한 해외발 악재와 금융위기 후유증의 표면화 등으로 성장률이 4.0%로 둔화

2)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“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”(삼성경제연구소)의 내용을 요약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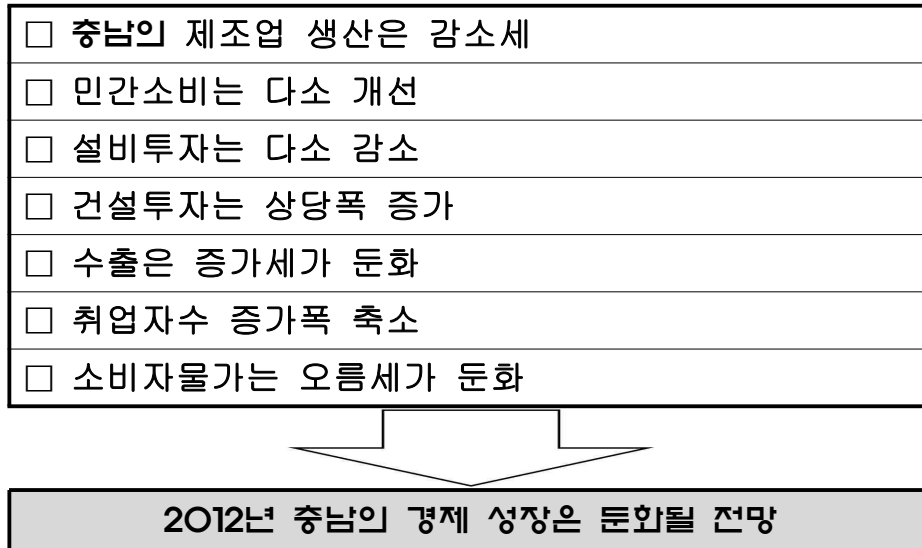
## ◆ 한국경제의 주동력인 수출 증가세 둔화

- 한국경제 성장의 주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증가세가 2012년에는 세계경기 둔화와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전망
- 수출은 2011년에는 20.9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, 2012년에는 수출증가율이 11.9%로 크게 하락할 전망
-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을 하락, 반사이익의 소멸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2011년보다 크게 하락하겠으나 두 자릿수는 유지할 것으로 여겨짐

## ◆ 보조동력은 내수도 성장을 하락을 보완하기에 역부족

- 한국경제 성장의 보조동력인 내수는 2012년에도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 성장을 하락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
- 2011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,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.9%에 그침
-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.8%, 2.7%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전망

### 3. 충남의 경제전망<sup>3)</sup>



#### ◆ 2012년 중 충남의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는 제한적

- 디스플레이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선진국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 수요 확대, 공급과잉 현상 완화 등으로 부진이 완화될 전망
- 자동차는 국내외 수요 부진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
  - － 내수는 경기침체 우려,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
  - － 수출은 중동, 미국, 남미 등 주요 수출국\*의 수요 부진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

3) 충남 경제전망은 “2012년 대전·충남지역 경제전망”(한국은행)의 내용을 요약하였음



### ◆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전망

- 민간소비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오름세 진정 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여건 개선,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소비 기반 확충 등으로 개선될 전망
- 다만 처분가능소득의 대부분을 이미 소비에 지출하고 있어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

### ◆ 설비투자는 다소 감소할 전망

- 2012년 중 제조업체의 설비투자(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결과)는 금년에 비해 8.3% 감소할 전망
- 대전·충남지역의 설비투자 BSI 전망치(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조사)도 2011년 117에서 2012년 111로 하락

### ◆ 건설투자는 상당폭 증가

- 주거용 건물은 충남지역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 등으로 큰 폭 증가할 전망
- 비주거용 건물은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건설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- 다만 토목건설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할 전망

## ◆ 수출은 선진국 수요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

- 반도체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IT수요가 감소하고 2011년 10월 발생한 태국 홍수에 따른 HDD(하드디스크 드라이브) 공급 부족으로 PC 생산이 부진하면서 감소할 전망
- 디스플레이는 중국,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의 성장과 태블릿PC, 스마트폰 등 모바일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패널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할 전망
- 석유화학제품은 세계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제품수요 감소 및 유가 상승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
- 대중국 수출은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른 높은 성장세 지속 등으로, 대홍콩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중계무역 성장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
- 반면 대유럽 수출은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, 대미국 수출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## ◆ 고용사정은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

- 제조업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

-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
- 음식숙박업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의 생계형 창업이 늘겠으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
- 건설업은 주택건설 경기 회복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

#### ◆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

- 소비자물가는 경제 성장세 둔화,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,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
-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둔화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## 4. 충남의 2012년 GRDP 실증분석

### 1) 연구방법

◆ 충남의 GRDP전망은 통계청의 지역별 GRDP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RIMAX(Auto-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tra) 모형을 이용

○ 예측모형은 크게 경제모형과 시계열 예측모형으로 구분

- 경제모형은 경제변수에 수치를 주어 정량화하고 변수 간에 관계를 설정한 후 경기에측모형을 만들어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
- ARIMA(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)모형은 불안정한 시계열을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회복시킨 후, 자기변수의 과거값으로 회귀식을 구성하는 AR과정과 모형추정 잔차의 이동평균 함수형태로 표현되는 MA과정의 결합함수로 추정해 내는 방법론임

○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ARIMAX 모형을 통해 미래추세를 파악

### 2) 충남의 GRDP 추세 및 전망

#### ◆ GRDP추세

◆ 2000년 이후 충남의 GRDP는 연평균 10.2%씩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4.5%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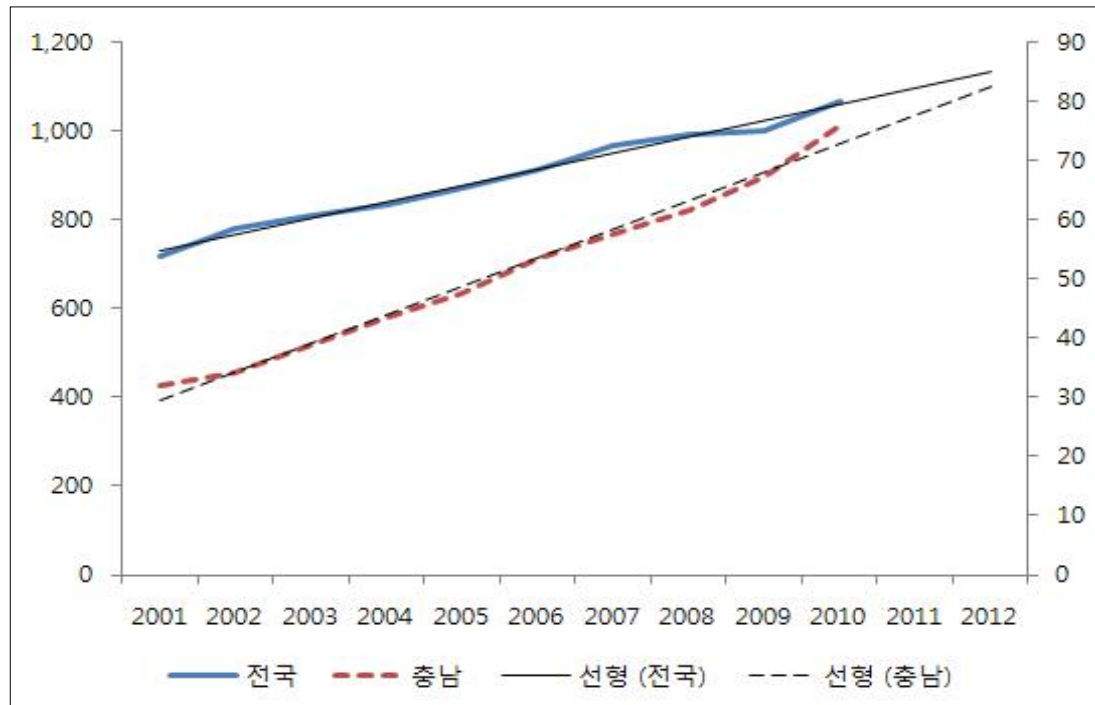
◆ 충남은 2009년 8.9%, 2010년 13.4%의 GRDP 증가를 보임

<표 2> 충남의 GRDP 추세

(단위: 백만원, %)

| 년도   | 전국            |     | 충남  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
|      | 원데이터          | 증가율 | 원데이터       | 증가율  |
| 2001 | 718,652,029   | 3.9 | 31,816,724 | 2.8  |
| 2002 | 778,485,333   | 8.3 | 34,185,883 | 7.4  |
| 2003 | 806,524,079   | 3.6 | 38,783,631 | 13.4 |
| 2004 | 834,771,320   | 3.5 | 43,327,332 | 11.7 |
| 2005 | 869,304,594   | 4.1 | 47,497,309 | 9.6  |
| 2006 | 914,018,451   | 5.1 | 53,505,262 | 12.6 |
| 2007 | 965,297,715   | 5.6 | 57,563,405 | 7.6  |
| 2008 | 991,677,406   | 2.7 | 61,568,588 | 7.0  |
| 2009 | 999,311,446   | 0.8 | 67,054,755 | 8.9  |
| 2010 | 1,064,815,214 | 6.6 | 76,030,982 | 13.4 |

자료: 통계청 KOSIS, 지역소득, 주: 2005년 기준가격임



[그림 1] 전국과 충남의 GRDP 추세

(단위: 조원)

○ 충남의 GRDP 성장추세는 전국 GDP의 성장추세보다 빠르게 증가

## ◆ GRDP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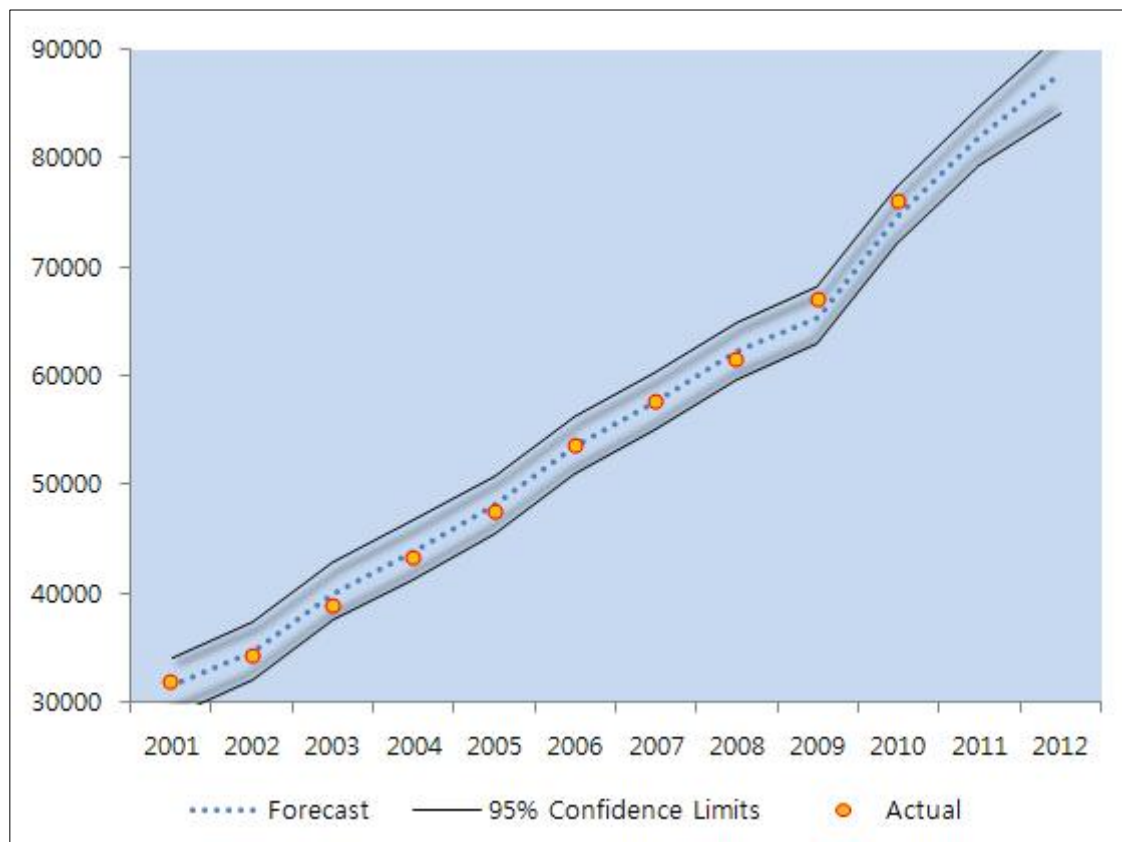
- ◆ ARIMAX모형 이용하여 충남의 2012년 GRDP를 예측한 결과  
2012년 충남의 GRDP는 전년대비 7.2% 증가한 87.9조원에  
달할 것으로 여겨짐

- 95% 신뢰구간으로 살펴보면 최소 84.1조원, 최대 91.6조원 GRDP  
달성이 가능

<표 3> 충남의 2015년 GRDP 전망

(단위: 백만원)

| 예측값        | 표준오차      | 95% 신뢰구간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87,880,751 | 1,907,025 | 8,4143,052 | 91,618,451 |



[그림 2] 충남의 2012년 GRDP 추세

(단위: 백만원)

## 5. 요약 및 결론

-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GRDP 예측을 위해서 충남의 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ARIMAX 모형을 활용
- 분석결과 2012년 충남의 GRDP는 7.2% 증가한 87.9조원으로 예상
-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10년 2011년 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충남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
- 그러나 ARIMAX 모형은 갑작스런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, 재정위기 등 상황에 따라 예측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

| 분야   | 내용             | 기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  | 제조업 생산 감소세     |  |
| 민간소비 |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    |  |
| 설비투자 | 설비투자는 다소 감소    |  |
| 건설투자 | 건설투자는 상당폭 증가   |  |
| 수출   |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    |  |
| 고용   |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   |  |
| 물가   |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둔화 |  |

2012년 충남의 GRDP는 전년대비 7.2% 증가한 87.9조원

## 〈참고자료〉

“2012년 대전·충남지역 경제전망”,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, 2011

“2011~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”, 국회예산정책처, 2011

“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”, 삼성경제연구소, 2011

“2012년 국내경제전망”, LG경제연구원, 2011

“2012년 세계경제전망”, LG경제연구원, 2011